

# 전북 민선9기 100일...도민 약속 실천 토대 다졌다

도청·광장 개방...도민주권 확대  
간부회의생중계 등 열린도정강화  
피지컬AI·로봇 사업 7368억 확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기반 마련  
2027년 국가예산 10조2349억 반영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 설립 본격화

전북도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미래산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00일 동안 세운 체감성장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의 기업·농업·문화·인재가 스스로 성장하고, 그 성과가 일자리와 소득,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행을 준비한다는 복안.

이원택 도지사는 6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은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토대를 다진 시간이었다”라며 “이제 100일 동안 다진 토대를 투자와 기업 성장, 청년 일자리와 도민의 소득으로 바꿔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민주권 분야에서는 도청과 광장을 도민에게 개방하고, 간부회의의 생중계로 정책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열린 도지사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았으며, 앞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에 도민의 참여를 넓히고 제언의 처리 결과도 알릴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자주·평등·민주 정신과 인내전의 뜻도 재조명해 도민주권으로 이어간다.

특히 AI 시대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도청 전반에 AI를 접목하고 AI에 기반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한다. 조직개편으로 추진체계를 갖춰 산업뿐 아니라 교육과 생활 서비스, 행정까지 AI 대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다.

먼저 체감성장은 도민의 일자리와 소득, 생활이 실제로 나아지는 성장이다. 도는 지역에서 성장의 성과가 쌓이고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을 만들고, 전북 안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자라날 기반을 마련한다. 내년도 예산과 조직도 도민 소득과 행복, 인구와 경제생태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준비

한다.

기업 성장사다리는 4단계에서 6단계로 넓혀 기술개발부터 판로와 투자까지 지원을 보강하고, 임기 안에 매출 1,000억원 이상 지역 대표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 지역성장펀드의 자펀드 출자사업을 본격화해 총 1,8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5조원 규모의 체감성장펀드를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이 가운데 1조원 규모의 피지컬 AI·로봇 분야 펀드 조성을 검토하며, 전북성장주식회사 등 성장 선도기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후속 절차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디지털 전환을 돕는 ‘소상공인 디지털 고속도로’를 마련한다. 전북형 로컬프렌차이즈를 육성하고 전북페이 구상도 지역 소비와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다듬는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건설 현장에서 지역기업과 지역 기자재의 참여도 확대한다.

또 농업은 생산과 가공·유통·판매를 연결해 농어민 소득을 높이고, 문화예술인은 창작과 활동을 이어가며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기업의 후원 확대도 검토한다. 햇빛·바람·소독마늘과 연금도시 구상을 구체화해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도록 한다.

복지와 안전, 쾌적한 환경을 통해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것도 체감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여성·장애인·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복지·돌봄을 살피고, 재난 예방과 소방 대응을 강화한다. 전북의 생태자산을 보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성장의 성과를 생활 안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미래산업에서는 현대차 새만금 투자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한다. 전력·용수·교통과 부지·인허가를 행하고, 당장 협의를 바탕으로 전북특별법 3차 개정 등 관련 입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대응한다. ‘새만금 로봇·수소 메가특구’도 준비해 현대차와 협력기업의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5년 간 7,368억원 규모의 피지컬 AI·로봇 국가 프로젝트 확보를 계기로 연



“100일 토대 닦아... 도민 삶 바꾸겠다”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6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구개발과 실증의 성과를 도내 제조현장에 연결한다. 로봇산업 전략과 기업의 도입 수요, 연구 기반을 준비하고 계약학과 등 대학·기업 협력으로 기술과 인재를 함께 키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새만금·익산·완주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642억원을 투입하고 약 8,300억원의 민간투자를 연계할 계획이다. 기업·대학·연구소를 연결해 화학소재 산업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반도체 랩 유지까지 이어갈 토대를 다진다.

그린수소 플랫폼·첨단로봇 파운드리·농생명바이오의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전략에 전북의 3대 성장엔진으로 반영됐다. 특히 그린수소·피지컬 AI·헬프라는 전북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정부의 지원과 투자로 키울 기회를 확보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에 전략산업이 반영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한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그린수소 플랫폼은 태양광·해상풍력을 수소 생산·활용으로 연결한다.

전북개발공사의 에너지공사 재편과 민선 9기 조직개편을 통한 에너지국 신설로 에너지 생산과 첨단기업 유치에 뒷받침한다. 첨단로봇 파운드리 피지컬 AI 연구·실증을 실제 생산으로 잇고, 농생명바이오는 식품·푸드테크와 바이오 성장의 폭을 넓힌다. 헬프는 정부가 전북에 성장 기회를 열어주면서 새로운 산업을 선점할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를 계기로 헬프산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조직개편·인재양성·투자 지원을 통해 피지컬 AI·로봇, 재생에너지, 반도체, 식품·바이오, 국방 등 전북의 강점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2027년 국가예산 정부안에는 전북 예산 10조 2,349억원이 반영돼 정부안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새만금과 첨단산업, 스마트 농식품 제조 등 미래 성장 신규사업이 담겼으며, 도는 국회 심의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지키고 부족한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현안도 챙긴다.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남원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설립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하고 병상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동남권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남원시·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해 차질 없는 설립과 개교를 준비하고,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진료 기반을 함께 갖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기업·인재를 모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한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도 정부·정치권·시군·도민과 힘을 모아 준비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SOC 확충을 위해 고속도로·철도·국도·국산 10조 2,349억원이 반영돼 전북의 핵심사업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고, 새만금 남북 3축 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조기 건설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땀 흘려 일군 성과가 도민의 삶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뛰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80% 지원

전북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독려

전북도가 6월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가을철은 벼 베기와 과수 수확 등으로 농기계 사용과 야외 농작업이 크게 늘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이에 도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만 18~87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 상해와 질병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연간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10만원에서 18만 원 수준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 도와 시·군이 30%를 지원해 전체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며, 농업인은 20% 안팎인 약 2~3만 원대만 부담하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실제 농가 현장에서의 보장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농업인 10만 7,000여 명이 가입해 4만 8,000여 건의 사고에 대해 총 15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농가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했다.

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총 1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가을철 농번기 사고에 대비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 가입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대해 민선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가을 수확기는 농기계 사용과 고령 농업인의 야외 작업이 집중돼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예기치 못한 농작업 사고에 대비해 본격적인 가을 농작업에 앞서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국가지유산야행

선비의 향기, 독립으로 피어나다

https://www.정음야행.kr/

2026 정음 국가지유산 야행

2026. 10. 15.(목) ~ 10. 17.(토) 17:00~22:00

정음시 태인면 일원(피향정·태인동헌·태인향교)

개막식 2026. 10. 16.(금) 18:30

국가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음시 태인시립도서관





# “쌀 대신 콩·밀 심으라더니” 생산 늘자 지원 ↓

## 콩 재고 2년 새 4만9천→12만3천톤 정부 수매량은 절반

정부가 쌀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민들에게 콩·밀 등 타작물 재배를 지속적으로 권장해 생산을 늘려놓고 재고가 쌓이자 다시 수매량과 지원예산을 줄이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지난 20여년간 세 차례 생산조정사업을 시행하고도 사업 종료 후 참여농가가 타작물 재배를 유지했다는 지적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3~2005년 쌀 생산조정제, 2011~2013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

2018~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세 사업 모두 3년 만에 종료됐으며 2023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과거 생산조정사업 종료 이후 참여농가가 타작물 재배를 계속했는지, 다시 벼농사로 돌아갔는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물 전환을 유도하면서도 정책 종료 이후 농가에 미친 영향이나 정책 효과를 추적하지 않은 셈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전략작물 정책에서도 생산 확대와 수요·비축 정책 간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밀·콩·가루쌀 등의 생산단지를 조직화하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왔다. 생산단지 재배면적은 2024년 목표 3만ha를 넘어 3만3천ha, 2025년에는 목표 3만3천ha보다 많은 3만7천ha를 기록했다.

생산 확대와 함께 비축 재고도 늘었다. 콩 재고는 2023년 4만9,400톤에서 2024년 8만8,300톤, 2025년 12만3,600톤으로 2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밀 재고도 같은 기간 4만1천톤에서 6만1,200톤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에 2027년 전략작물산업화 예산을 올해 563억6,100만원에서 421억 2,500만원으로 25.3% 줄였다. 정부 비축 사업의 두류 수매계획도 6만톤에서 3만톤으로 절반 축소하고 밀 역시 2만8,880톤에서 2만톤으로 줄였다. 전략작물직불제 두류 지급면적도 2026년 2만2천ha에서 2027년 2만ha로 축소됐다. 특히 2025년 실제 두류 직불 지급면적 3만2,100ha와 비교하면 2027년 예산 반영 면적은 1만2,100ha, 37.7% 적다. 정부는 과잉생산 우려가 제기된 백태

에 대해서도 신규 직불 참여를 제한하고 전년도 이행농가의 기존 면적 범위에서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신장식 의원은 “정부가 쌀이 남을 때마다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요구해 놓고 사업이 끝난 뒤 농민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대로 추적하지 않았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작물을 바꾸고 시설과 농기계에 투자한 농민에게 정책 변경의 위험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조정정책은 생산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생산·소비·가공·정부 비축을 하나의 중장기 수급계획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지원품목이나 수매량 변경 때 기존 참여농가에 충분한 사전 예고와 단계적 조정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 전주상의-전북은행, 구체적 방안 없어

## 10월 회장단회의 개최 김정태 회장 및 임직원 참석

전주상공회의소와 전북은행이 지역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전주상공회의소는 6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상의 주요 사업과 현안 보고, 하반기 주요 행사 추진계획 점검과 함께 지역 상공업 육성을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전북은행도 주요 경영현황과 지역금융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지역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과 상

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내용에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대출금리 우대나 특별자금 공급, 보증기관 연계, 자금난 기업 지원 등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지역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주요 의제로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 규모나 실행계획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전주상의가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기업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했다. 박춘원 전북은행장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도 “전북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기업의 금융애로



전주상공회의소는 6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상공회의소>

해소와 경영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전주상의와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전북은행의 만남이

단순한 교류와 협력 다짐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준호 기자



<사진=전북농협>

### 전북 부안농협, 거제에 수해 복구 성금 전달

#### 굴착기·전문인력 지원

전북 부안농협이 집중호우와 제방 붕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둔덕면 농업인들의 영농 복귀를 돕기 위해 성금 전달에 이어 굴착기와 전문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최근 거제 둔덕농협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들을 위한 수해복구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 현황과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6일 밝혔다. 거제시 둔덕면 일대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붕괴하면서 농경지에 자갈과 토사가 대거 유입되고 농업용 수로관이 매몰되는 등 260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추수를 앞둔 상황에서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진 데다 둔덕농협 하나로마트 창고까지 침수되는 등 농가와 농협의 피해가 겹치면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안농협은 단순한 성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영농 복구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원철 조합

장은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가을걷이가 마무리되는 11월께 인력만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농경지 정리를 위해 농협이 보유한 굴착기와 전문인력을 현장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을 달리는 농협이 수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정상화를 위해 성금뿐 아니라 농기계와 전문인력 지원까지 추진하면서 협동조합 간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원철 조합장은 “지역은 다르지만 농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협동조합의 본분”이라며 “성금 전달과 함께 실질적인 복구 장비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임준 둔덕농협 조합장은 “피해 농가에 따뜻한 도움을 보내준 부안농협에 감사드린다”며 “피해 농가의 복구와 영농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 펫푸드 5년 새 67% 성장… 수입 점유율 파악 못해 “기초 통계부터 구축해야”

국내 펫푸드 시장이 5년 새 67% 성장하며 2조5천억원 규모로 커졌지만 정부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펫푸드 무역수지가 11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관련 수출지원 예산은 2년 새 5배 가까이 늘어 산업 육성에 앞서 시장 실태와 정책 성과를 정확히 진단할 기초 통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2020년 10억6,480만달러에서 2025년 17억8,300만달러로 67.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5년 시장 규모를 달러당 1,400원으로 환산하면 약 2조5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국내 펫푸드 시장의 수입산 점유율에 대해 ‘관련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산과 수입산 제품의 점유율 등 산업 경쟁력을 판단할 기본적인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최준호 기자

## 전북은행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주인 찾아주기 운동’ 고객 권익보호 최선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오는 23일까지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를 대상으로 잔액 5만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 미거래 신탁을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

점을 방문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또는 계좌정보통합 관리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매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고객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 군산시·군산대, 지역과 함께하는 ‘잡페스티벌’ 개최

## 지역기업 채용상담부터 취업컨설팅까지 한자리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가 지역 청년과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잡페스티벌 군산 굿잡(GOODJOB)’을 개최한다. ‘지역과 함께, 다시! 내일(JOB)을 위한 닷(ANCHOR)을 내리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국립군산대학교 체육관 및 주변 공간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은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잡페스티벌은 실내 채용상담존 등 50개 부스와 실외 컨설팅, 직무체험존 50개 부스로 총 100개 부스가 운영되며, 청년·중장년·외국인 등 취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채용상담존은 Eco&Tech, AI·소프트웨어·통신, 해양·수산·농업, 식품·바이오·



<사진=군산시>

물류, 행정·금융·의료·예술 등 분야별로 구성해 구직자들이 관심 분야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만나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일하이텍, ㈜휴먼컴퍼티즈, 부경하이텍,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타타대우모빌리티, 우미건

설, LX글라스, ㈜하림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T, 한국농어촌공사, 종근당바이오, 대상, 전북은행,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국민연금공단, 군산의료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이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군산대학교 엔지니어링단, 군산시 청년플,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전북일자리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과 대학 관계기관도 컨설팅존에 참여해 취업상담과 진로·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행사에서는 채용상담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후 1시 부스 운영 및 자유 관람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행사장 라운딩에 이어 오후 3시부터는 ‘면접왕 이형’ 초청 특강이 열린다. 행사 마지막에는 경품 추첨과 폐막식

/군산=지승길 기자

# 정읍시, 마늘·양파 적기 재배·병해충 예방 당부

## 겨울철 피해 예방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가 마늘·양파 파종과 옮겨심기 시기를 맞아 적기에 심고 병해충을 미리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난지형 마늘은 10월 상·중순까지 파종하는 것이 좋다. 심기 전에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이용해 씨마늘을 소독하고,

심는 뒤에는 흙을 5~7cm가량 덮어야 한다. 너무 일찍 심으면 벌마늘이 생길 수 있고, 알게 심으면 겨울철 추위와 건조로 피해를 볼 수 있어 파종 시기와 깊이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한지형 마늘은 겨울을 안전하게 나도록 12월 무렵 부직포나 비닐을 덮어 추위에 대비해야 한다.

양파는 10월 중·하순에 옮겨심고, 기계 이식용 모종은 11월 상순에 심는 것이 좋다. 지난해 노균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밭에서는 옮겨심은 뒤 7일 간격으로 두 차례 예방 방제를 해야 한다. 양파 잎이 마르거나 생육이 부진한 밭은 제4종 복합비료 또는 요소 0.2%액을 잎에 뿌려 생육을 관리할 수 있다. 요소

액은 물 20L에 요소 40g을 녹여 만들며, 5~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한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마늘과 양파의 품질을 높이고 겨울철 피해를 줄이려면 토양 소독과 적기 파종·옮겨심기가 중요하다”며 “병해충 발생 여부를 살피고 필요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장정철 기

# 가을철 전기 안전 관리

## 전열기구 점검

코드손상. 과열방지  
기능 확인

## 콘센트 과부하 주의

문어발식 사용금지  
정격용량 초과 주의

## 누전 합선 예방

누전차단기. 노후배선  
점검

## 야외 전기 안전

방수처리 철저, 전문가  
감독 설치

## 군산시, 8일 시민의 날 행사 음악회부터 불꽃쇼까지

군산시는 오는 8일 목요일 제64회 군산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불꽃쇼 관람 포인트와 교통통제, 주차장 이용 안내 사항을 2일 집중 안내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부 기념식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군산시청 대강당(2층)에서 열린다. 이후 2부 '별빛음악회'는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은파호수공원 물빛나디광장에서 시립예술단과 시민 문화·예술 공연, 초청 가수 공연의 무대로 꾸며진다. 3부 '별밤불꽃쇼'는 8시 20분부터 8시 35분까지 음악과 함께 은파호수공원 일원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저녁 시간대 은파호수공원 일대에 차량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통제도 실시한다. 통제 시간은 행사 당일인 8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며, 은파호수공원 진입로인 은파삼거리에서 좌회전 진입이 전면 통제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로 은파호수공원 주변 진입로 통제가 진행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미리 안내해 드린 관람 포인트와 주차장 정보를 확인하시어 안전하게 가을밤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산불위험지도’ 구축해 예방체계 강화

익산시가 산불 위험 지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불 관리에 나선다.

시는 6일 '2026년 익산시 산불위험지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별 산불위험 요인 분석 결과와 향후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용역은 익산 전 지역의 산불 발생·확산 위험요인과 예방·진화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불 예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산림 중심의 조사에서 나아가 GIS(지리정보시스템) 공간분석과 현장조사를 연계했다. 시는 GIS 사전분석을 통해 산불 위험이 높은 119개 구역을 도출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산불감시시설과 소방용수 확보 여부, 진화차량 접근성, 산림 연접지역의 위험요인 등 실제 산불 발생 시 예방과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송지영 익산시 산림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마다 다른 산불 위험요인과 예방·진화 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분석 결과를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에 적극 활용해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23일까지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군산시는 오는 23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16개소에서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거나 핏알 상처를 통해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매년 1회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시술비는 두당 5,000원이며,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 대상은 군산시에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이며, 미등록 반려견의 경우 현장에서 동물등록을 마친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1년에 한 번 꼭 접종해 주시길 바라며,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봉투 휴대 등 핏터켓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대규모 하수관로 정비 본격화

## 오수관로 신설 및 배수설비 정비 등 482억 3천만원 투입

익산시가 하수 미처리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하수관로 정비에 본격 나선다.

익산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주요 설계 내용과 향후 공사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함열읍과 함라·웅포·성당·용안면 등 1읍 4면 10개리 하수 미처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공

공하수도 체계로 연계해 처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482억 3,000만 원으로, 오수관로 36.2㎞를 신설하고 맨홀펌프장 31개소와 1,048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정비한다.

시는 지역 지형과 기존 지하시설물 등을 고려해 자연유하 방식의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유하가 어려운 저지대 가옥에는 자가펌프를 설치하는 등 현장 여건을 설계에 반영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공공하수도 이용이 어려웠던 1,000여 가구의 생활하수를 공공처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악취 등 생활 불편을 줄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미처리 생활하수의 유출을 줄여 금강수계 수질보전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청년이 일하기 좋은 공장 만든다

## 농공단지 환경 개선공모 선정… 청년층 유입 기대

정읍시가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작업환경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출연사업' 공모 결과, 정읍시는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정읍시와 함께 전남 영암군, 강원 철원군 등 3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지역별로 국비 4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열세·중소기업 공장의 낡은 작업장과 편의시설을 개선해 청년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읍시는 국비 4억원에 시비 1억원과 기업 자부담 2억 9390만원을 더해 총 7억939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에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10곳이다. △북면농공단지 4곳 △제3일반산업단지 3곳 △제2일반산업단지 2곳 △산태인농공단지 1곳이 포함됐다.

기업별로 청년 근로자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필요한 시설을 개선한다. 기숙사·휴게실·식당·샤워실 등 복지·편의 공간을 새로 마련하거나 고치고, 작업장의 환기·조명·안전시설도 정비한다. 공장 외관과 녹지, 주차 환경 개선도

지원 대상이다.

시는 이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12월에는 시비 1억원을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시설 개선이 청년 근로자의 유입과 기존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부족했던 휴식·편의 공간을 확충해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층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군산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2027년, 침수 예방·돌봄 생활밀착 시책 병행

군산시가 2027년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해로 정하고, 내년도 시정 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달 28일부터 김재준 시장 주재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 변화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군산'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기획행정국을 비롯한 9개 국·소가 참여해 총 418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체감도, 예산 및 추진여건, 유사·중복사업 등을 살피며 꼭 필요한 사업에 행정역량과 재원을 집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주요업무계획은 계속사업 350개와 신규사업 68개로 구성됐으며, 민선 9기 시정방침인 자치주권·경제주권·문화주권·정주주권·안전주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과 대전환을 위한 5대 주권 전략'을 구체화했다.

먼저 자치주권 분야에서는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제안 정책실명제와 원스톱 민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이 정책의 과정에 참여하고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주권 분야에서는 RE100 산업단지과 로봇·해상풍력 등 미래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주권 분야에서는 군산만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국제근대문화 축전, 수산물축제 등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정주주권 분야에서는 시민의 일상 가까운 분야에 변화를 추진한다.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간다.

안전주권 분야에서는 경포천유역 침수피해방지 시범사업과 침수위기 대응 도로정비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사진=군산시>

일상을 지키는 안전 기반을 확충한다. 군산시는 특히 2027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1조 3,010억 원이 반영된 성과를 기반으로, 정부의 5급 3특 성장전략과 새만금 대규모 투자 등 급변하는 정책·산업환경에 선제 대응해 새로운 기회를 지역 성장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김재준 시장은 “2027년은 민선 9기의 방향을 시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과 함께 변화의 힘을 모아 더 나은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

## “농가 영농비 부담 덜다” 30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1억 9,400만 원을 투입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유, 휘발유, 등유 등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실제 면세유를 구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단가는 경유 20원, 휘발유 19원, 등유 26원 등으로 책정됐으며 총 6종의

유류를 지원한다. 지급 기준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구입한 면세유 구입량의 50%를 적용하며, 농업인 1인당 최대 1만여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익산시 농촌지원과장은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들은 신청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순항’

2028년 10월 개원 목표

군산시는 군산 시민의 숙원 사업인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 의료계와의 상생 방안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은 2026년 9월 4주 차 기준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병원은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에 500병상을 갖춘 종합의료시설로 건립된다.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등 5개 센터와 30여 개 진료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산 지역에 부족했던 중증·응급·고난도 진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병원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와 재정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200억 원 추가 지원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시는 후속 절차로 시의회의 출연 동의를 거쳐 2027년과 2028년 2개년에 걸쳐 전북대학교병원에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2028년 10월 개원 전까지 전북대병원, 시의회 및 지역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성공적인 병원 건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익산시의회>

## 김영민 익산시의원, 동초공원 현장점검

“안심하고 찾는 환경 만들어야”

익산시의회 김영민 의원(여당동)은 지난 2일 이리동초등학교 인근 동초공원을 찾아 관계부서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과 보행환경, 조명시설 등 공원 전반의 관리상태를 점검했다.

동초공원은 학교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어린이와 어르신 등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공간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날 현장에서는 모래놀이터 곳곳에 잡초가 자라 있는가 하면 주변에 쓰레

기가 남아 있는 등 세심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보안등의 작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원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쉬고 이용하는 생활공간”이라며 “주민들이 언제 찾아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면서 공원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막는다

양돈농가 선제 검사

정읍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의 폐사축과 액비를 검사하고 농장별 방역시설을 점검한다. 정읍에서는 올해 2월 덕천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현재 지역 내 127개 농가에서 돼지 약 32만두를 기르고 있는 만큼, 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맞춰 농장 안팎의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10월 중 지역 양돈농가에서 폐사한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농장 안의 액비에 대한 환경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시는 검사로 위험요인을 일찍

찾아내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과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황실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발생 상황에 따라서는 운영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바이러스가 농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제 검사와 지속적인 소독, 농가별 방역시설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군산시,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제 홍보

군산시는 지난 2일 구시청광장(시간여행축제장 일원)에서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군산소방서·군산경찰서·안전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 △축제·행사 등 4개 분야로, 일상생활이나 축제 현장 등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할 수 있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작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의 시작”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가을철 안전관리 강화 2(題)

## 남원시, 고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남원시는 '26·'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 시설 입원·입소자이며,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며 10월 6일 이후 65세 이상 어르신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함께 받을 수 있어 한 번의 방문으로 편

리하게 접종을 마칠 수 있다.

접종 시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역저하자는 무료 접종 가능한 기준이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15~2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원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약 63%가 65세 이상으로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입원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가을철 농기계 야간사고 예방 총력

순창군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도로 주행에 따른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3일까지 농기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수확철 농기계의 야간 도로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와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근무 시간 이후 야간 시간대에 직접 현장을 순회하며 도로를 운행하는 농기계의 안전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 운행 식별이 어려운 트랙터, 콤팩트, 경운기

등 농기계를 대상으로 후부 반사경 및 안전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반사경이 없거나 훼손된 농기계에는 현장에서 직접 반사경을 부착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농기계 운전자에게 야간 도로주행 시 등화장치 점검, 반사경 관리, 안전운행 수칙 등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현장 중심의 농기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예비창업3년 미만 기업 대상  
기본 2년 입주...1년 연장 가능

완주군 창업보육센터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고자 '2026년 제3차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공용실 2곳과 개별실 1곳을 합쳐 최대 3개 업체를 선발한다. 입주 공간은 최종 심사를 거쳐 협의한 뒤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완주군 내에 사업장을 새로 열 계획인 예비창업자나 완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이다. 다만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모집 분야는 마을회사, 공동체, 로컬푸드, 귀농·귀촌 등 군 공동체 육성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비롯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반적인 창업 영역을 포괄한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대면·서류 평가를 거치며 센터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가점을 준다. 아울러 심사를 거쳐 시제품 개발지원과 멘토링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입주기간은 2년이며, 향후 성과 심사를 거쳐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6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세외수입 운영·우수사례 ‘도내 2관왕’

실적 으뜸상·우수사례 우수상  
채납자 맞춤형 분납 징수 '성과'

순창군이 전북도가 주관한 세외수입 관련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징수·채납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군은 '2026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으뜸상을 받은 데 이어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징수액 증감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이월채납액 정리보류 등 9개 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순창군은 채납액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전년보다 평가 성적이 가장 크게 향상된 군으로 선정돼 으뜸상을 받았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와 채납액 정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인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순창=박지현 기자



에서는 '현장 중심 핀셋 안내를 통한 세외수입 채납 관리'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채납관리단을 활용해 채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분납 징수를 추진했다. 특히 농번기에 집을 비우는 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방문 안내 스티커를 제작·활용하면서 반복 방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채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수상으로 순창군은 세외수입 징수 실적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채납관리에서도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 남원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

남원시는 6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회장 괄철곤)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요 내빈을 비롯해 노인회원 및 유공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식전 행사에서는 전북도청 문화산업과와 연계한 무료 공연인 '신나는 예술버스'가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축하공연을 선사하며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이어 진행된 2부 기념식에서는 개회 및 내빈 소개에 이어 박준웅 부회장의 노인강령 낭독이 진행됐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 복지 증진에 헌신한 모범노인 및 유



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이어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남원시장 표창과 지회장 표창이 수여되어 그간의 공로를 격려했다. 이후 괄철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의 기념사와 폐회선언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세심하게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직접일자리 근로자 100여명 안전교육

남원시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6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근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수칙과 대응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현장별 주요 위험요인과

예방·대처 방안 △산업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수칙 △비상 상황 시 대응요령 등이었으며,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안전수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귀농·귀촌인 대상 농촌생활 실용기술 전수

완주군이 최근 닷새간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귀농·귀촌인 12명을 대상으로 농촌 정착에 꼭 필요한 맞춤형 기술을 전수하는 '2026 완주군 귀농·귀촌 실용교육'을 운영했다.

귀농·귀촌 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노후주택과 농업 시설 관리다. 사소한 보수 작업에도 일일이 외부 인력을 불러야 해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촌 생활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용접, 도배, 페인트칠 기술을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두루 익히도록 알차게 꾸렸다.

교육 첫 이틀 동안은 용접기 다루는 법과 안전 수칙을 시작으로 기초 용접 기술을 익히고 농촌에서 흔히 쓰이는 간단한 용접 작업을 실습했다.

사흘째에는 벽지 재단과 붙이기, 마감 등 도배 기본기와 노후 주택 벽면 보수 요령을 배웠으며, 나흘째에는 페인트 종류별 특성과 도구 활용법, 밀착업과 실내·외 칠하기 실습을 이어갔다.

마지막 날에는 앞서 익힌 세 가지 기술을 한데 엮은 종합 실습을 진행해 참가자들이 실제 주거 공간을 직접 보수하고 관리해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자립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용 교육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 운봉읍, 이장협의회 연계 경로당 보조금 집행교육

남원시 운봉읍에서는 6일 오전 11시 운봉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이장회의와 연계해 관내 34개 경로당 총무를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과 회계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및 행정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경로당 보조금 집행기준 및 유의사항 △보조금 지출 및 회계장부 관리 △증빙서류 작성 및 보관 방법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경로당 운영 시 준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경로당 보조금이 당초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시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구비하고, 회계장부와 통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소방서, 가을 수확철 농기계 안전수칙 홍보 활동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기계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속도가 느리고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농로와 경사진 길, 좁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농기계 운행 전에는 후미등과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를 점검하고, 야간이나 해질 무렵 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반사판·반사스티커 등 안전장치를 부착해 다른 차량이 농기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 농기계 이상 유무 점검 △음주 후 농기계 운전 금지 △경사지 농로나 좁은 길에서 갑작스런 농기계로 동승자 태우지 않기 △회전체 등 작업부 점검 시 반드시 시동 끄기 △도로 주행 시 등화장치 및 반사판 점검 △해질 무렵과 야간 운행 자제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완주소방서는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읍·면 이장단 회의 등을 활용한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농기계 안전수칙과 가을철 주요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적극 전파하는 등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지속가능도시 평가 전국 군 단위 1위

## 전국 82개 군 가운데 종합 1위 인구성장·학령인구·재정 등 역량

완주군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종합 1위에 오르며 '지역경영혁신대상'을 거머쥐었다.

(사)한국지역경영원, 김영배, 권영진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주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지속가능 발전 역량과 미래 대응 수준을 객관적 지표로 종합 분석하는 권위 있는 평가다.

올해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삶의 질, 미래 성장, 안전 환경 등 3대 부문 33개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군은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당당히 전국 군 단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인구성장률, 학령인구증감률, 지역안전지수, 재정력 등 미래



<사진=완주군>

발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탁월한 행정 역량과 탄탄한 성장 잠재력을 공식 입증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전국 1위 선정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완주군의 정책과 군민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완주군만의 강점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전국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주요 가치로 하는 각종 평가인 '2024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와 '2025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에서 사회적 책임 부문 전국 1위에 오른 데 이어, '2026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 종합대상을 차지하는 등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이번 지속가능도시 대상 수상까지 더해지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 명품 도시' 위상을 확고히 굳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임·순·남 4-H연합회, 지역농업 미래 모색 ‘한마음’

## 영농 경험 공유·지역간 교류 강화 체육활동으로 화합·유대 다져

순창군 4-H연합회(회장 이승률)가 6일 순창 장애인체육관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모으는 '제6회 임·순·남 4-H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농촌 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임실·순창·남원 3개 시·군 청년 4-H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여 서로의 영농 경험을 나누고,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년 농업인의 활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됐다. 또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지역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원들의 에너지와 단합력을 끌어올리는 신나고 다채로운 체육활동이 펼쳐졌다. 참가한 청년 농업인들은 땀방울을 흘리며 그간의 영농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며 뜻깊은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이승률 순창군4-H연합회장은 “3개 지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기찬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 가슴 뛰는 시간이었다”라며 “젊은 농업인들만의 창의성과 기발함으로 지역 상생 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기찬 청년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최영일 순창군수는 “임실, 순창, 남원의 4-H연합회원들이 단단하게 연대하고 소통해 앞으로 전 북특별자치도를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이끄는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 흥부제, 날짜별 체험·공연 ‘다채’

## 9~10일 가족·청소년 체험 풍성 11일 만인 무과 별시 등 운영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광한루원과 요천둔치 일원에서 열리는 제34회 흥부제가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승월고 남단 요천둔치에 마련된 ‘흥부체험존’에서는 가족 참여형 체험을, 월궁광장의 ‘제비상생존’에서는 창곡과 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올해 흥부제는 우애·나눔·보은·행운을 주제로 9~10일과 11일의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해 방문 날짜에 따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9일과 10일에는 흥부체험존에서 어

린이 직업체험 ‘키자니아’, 청소년 전통 과학축전과 수학체험교실에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9일에는 사람의 광장에서 흥부 그림그리기 대회가, 광한루원에서는 흥부백일장 대회가 열린다.

11일에는 흥부체험존에서 ‘만인 무과 별시’와 남원소방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국가유산청 만인의총과 연계한 ‘만인 무과 별시’에서는 훈련도감 두건 만들기, 석전 체험, 조선군사 복식체험 등을 통해 전통무예와 역사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

남원소방서 체험부스에서는 소화기·완강기 사용,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하임리히법 등 생활 속 응급

상황에 필요한 안전체험을 진행한다. 축제 기간 내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흥부체험존에서는 에어바운스를 즐기는 ‘흥부내 놀이동산’과 짚썰공에 체험·전시가 운영되고, 요천둔치 수경시설에서는 미꾸리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광한루원에서는 혼례의상과 전통 대례의식을 접하는 전통혼례체험이 운영된다. 소원바길에서는 건강과 가족의 행복 등 각자의 소원을 바에 적으며 흥부제의 행운을 나눌 수 있다.

광한루원 완월정에서는 8일부터 11일 매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미디어아트가 펼쳐진다.

/남원=정하복 기자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 제19회 주는개상 수상자 김미애 선정



장수군은 (사)의암 주는개정 신선양회가 주는개 탄신 452주년을 맞아 제19회 주는개상 수상자로 김미애 씨(1963년생·서울)(사진)를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는개상은 의암 주는개의 송고한 애국 충절 정신과 충(忠)·효(孝)·열(烈)의 가치를 계승하고, 이를 현대사회에서 실천해 귀감이 되는 여성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애 씨는 1991년 외식업을 시작한 이후 35년간 외식·식품산업 발전과 한식의 대중화·세계화에 힘쓴 은 여성기업인이다. 주식회사 엔타스를 설립·운영하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여성관리자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약 20년간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 외식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선양회는 김 씨가 기업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충’, 사람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효’, 어려움 속에서도 맡은 책임을 다하는 ‘열’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개편 대응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12년부터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교육·상담, 건강생활 실천 지원 및 합병증 예방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42.6%를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 중요하다.

2027년 사업 개편에 따라 65세 이상 등록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의 국비지원은 종료될 예정이나, 진안군은 지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비를 확보해 65세 등록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등록관리사업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앞으로도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리콜·리마인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 등을 통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지원하는 등 고위험군 발굴 및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강화

임실군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게릴라성 호우와 대형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지난 1일 임실군 소상공인협회, 오수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회 연합 회의에 참석하여 풍수해보험 안내 및 가입을 적극 독려 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총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또한 가입 혜택도 대폭 개선됐다. 상가(최대 1억 5천만 원)와 공장(최대 2억 원) 건물 및 시설·집기비품뿐만 아니라, 재고 재산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별도로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4,384억 규모 신규사업 발굴

##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장수군이 지역 여건과 강점을 살린 중장기 핵심사업 43건을 발굴하고 2028~2029년 국가예산 확보전에 본격 나섰다.

총사업비는 4,384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도비 확보 목표는 3,661억 원에 이른다.

군은 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최훈식 장수군수 주재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으로 ‘2028~202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신규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국비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군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대교제 철류관광벨트 조성사업(300억 원) △디지털 AI 기반 축산로봇 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500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9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장수군은 6일 최훈식 장수군수 주재로 ‘2028~202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장수군>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 사업별 추진 여건과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고교 지원의 필요성, 사업비 분담구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따져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군은 앞으로 발굴된 사업의 부처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들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국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굴된 신규사업이 국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협력해 전략적으로 중앙부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전북개발공사 ‘전북형 반할주택’ 협약

### 공공임대 120세대 공급 본격화 2031년 12월 준공 목표

진안군은 6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군민의 주거안정을 돕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사업 추진체제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은 진안을 군상리 909-6번지 일원에 추진되며, 사업부지 면적은 10,895㎡(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12월까지로,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한 뒤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추진한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을 공모 선정 당시 계획보다 더 확대해 추진한다. 2026

년 4월 공모 선정 당시에는 전용 59㎡(공급면적 약 24평형) 1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전북개발공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총 120세대로 늘릴 계획이다. 공급 구성도 전용 59㎡(공급면적 약 24평형) 60세대와 전용 84㎡(공급면적 약 34평형) 60세대로 조정했다.

이 같은 변경은 지역 내 주택 공급구조를 반영한 결과다. 진안군 공동주택 1,637세대 중 공급면적 100㎡(30평) 이상은 171세대(10.4%)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이 준공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으로 파악됐다.

진안군은 중·대형 평형 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다양한 가구 수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전용 84㎡(공급면적 약 34평형)물량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진안군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로·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지원, 부지 매수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맡는다. 전북개발공사는 설

계·인허가·시공관리와 주택 공급, 10년간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 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명갑 진안군의회 의장, 안상용 진안군이장협의 회장, 구동수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장, 이우석 진안군주민자치위원장, 문병석 귀농·귀촌협의회 이사장, 육성룡 달빛정류장 대표, 오선화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민간·교육계 인사들이 기본협약 체결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했다.

진안군은 협약 체결 이후 2026년 11월 진입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7년 1월 사업부지 확보, 2027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관련 검토 절차를 거쳐 2028년 1월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 2031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 전북형 보급자리, ‘행복반디숲’으로 새 출발

### 11월 말 준공내년 3월 입주 예정

무주군은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조성 중인 전북형 보급자리의 새로운 이름을 ‘행복반디숲’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9월 무주군청 공무원들과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한 결과로, 무주군은 접수된 38개의 명칭 중 시설 조성의 목적과 상징성, 지역성, 친근감,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복반디숲’은 무주를 대표하는 ‘반디불이’와 청정 자연을 상징하는 ‘숲’을

더한 이름으로, 무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농귀촌인들의 행복한 정착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시설은 입주자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경험하면서 영농과 지역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영농 체험 기능을 함께 갖춘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시설 간판과 안내 표지판 등에 ‘행복반디숲’ 명칭을 반영하고 귀농귀촌 관련 홍보물과 각종 사업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는 등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안성면 공정리 299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해 ‘행복반디숲’을 조성 중으로, 단지는 16세대 규모의 생활동을 중심으로 농기계창고와 공용실, 세대당 약 50㎡ 규모의 개별 텃밭으로 구성된다.

오는 11월 말 준공될 예정으로, 무주군은 준공 시기에 맞춰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입주 시기는 입주자 선정과 준비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용담댐 중심 ‘로컬브랜딩’ 본격화

### 트레저헌터 운영 성과 공유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6일 군청에서 ‘댐 로컬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 in 진안’ 추진 결과 및 ‘댐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진안군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마스터플랜 용역 수행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트레저헌터 in 진안’행사 운영 결과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댐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트레저헌터 in 진안’은 진안군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추진된 참여형 관광 이벤트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2일간 운영됐다.

이벤트 참여자들은 모바일 앱과 현장 QR 인증을 통해 여의주를 찾고 지역 명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운영 결과 유료 티켓은 총 7,276장이 판매됐으며, 직접 참여자는 약 1만 5천 명, 누적 참여는 약 2만 1천 명·회로 집계됐다.

진안군은 용담댐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댐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수립 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당 용역은 2025년 10월에 시작하여 총 15개월간 추진 중이며, 2027년도 1월에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에는 용담댐과 주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로컬브랜딩 방향, 인구 유입 거점 조성과 전방·산림·수변 특화 관광사업 등 후속사업의 추진 방향이 담길 예정이며, 진안군은 이를 통해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야외 일거리 창출 실험’ 기대

무주군 산타지 청년 마을의 ‘무주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7일부터 10월 한 달간 무풍면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주 3일 동안 무주에서 살아보며 자신만의 야외(아웃도어) 활동을 지속 가능한 일과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실험 프로젝트다.

참가자는 총 20명으로, 일·월·화요일에 활동하는 ‘선크루(SUN CREW)’ 10명과 ‘문크루(MOON CREW)’ 10명이 목·금·토요일에 마을·농가 체험, 지역 자원 조사, 자연

길 걷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숙박은 야영 또는 폐교를 활용한 공간에서 진행되며, 폐교 활용 공간에서는 남녀 생활공간이 각각 운영된다.

산타지 청년 마을은 2025년 행안부에서 주관한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무주형 청년 정착 모델 구축, 배낭여행, 도보여행,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일거리 실험, 청년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협업 과제 추진 등 농촌 마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

#### 2027년도 주민제안사업 등 심의 주민참여 통한 예산편성 강화

진안군은 6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제8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2027년도 주민제안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밀착형 사업 등 심의했다.

2027년도 주민제안사업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지역분과위원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총 71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진행했으며, 즉시 반영이 가능한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시급성과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모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은 총 20건이 접수됐다.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해 도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반딧불축제, 다화용기 사용 확대 효과 눈길

####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 확립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9.4~12.)가 ‘일회용품·안전사고·바가지요금 없는 3무(無) 축제’를 고도화하며 이목을 끈 가운데 일익을 담당한 ‘다화용기 사용 확대’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무주군은 기존에 축제장 내 음식 부스에서만 사용했던 다화용기를 ‘천원국수 부스’ 등 축제장 전반으로 확대해 사용했다. 9일간 점心和 그릇, 컵 등 총 641,470개를 사용했으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를 유지하며 일반 쓰레기 발생량을 줄였다.

이는 탄소배출 저감(약 44.9톤)으로 이어졌으며 감축량은 연간 약 40,820㎡ 규모 소나무(30년생) 숲에서의 탄소 흡수량, 승용차(에너지 효율 3등급

기준)가 349,011km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친환경 실천이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제장에 ‘친환경 홍보부스’를 마련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화용기 이용 인증 이벤트 등도 진행했다. 페다화용기를 활용한 ‘키링 만들기 체험 부스’에는 9일간 48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은 제31회 축제에서 일회용품 저감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한층 더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도 1억 2천만 원(국비)으로 2천만 원 증액된 만큼 친환경 축제 인프라를 강화하고, 방문객 참여와 환경 교육을 연계한 콘텐츠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걷기행사 성료

장계면 천변길기로이웃간화합다저

장수군은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장계면 천변 일원에서 지역주민 3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해서 더 행복한 우리 함께 걸여봄’ 걷기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기를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웃과 함께 걷고 소통하며 주민 간 교류를 넓히고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센터는 행사에 앞서 시장과 마을회관 등을 찾아 주민들의 참여를 안내하고, 걷기코스를 사전 점검하는 등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한 준비에 힘썼다.

이날 참가자들은 자신의 체력에 맞춰 △1코스(1.5km) △2코스(4.5km)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장계 천변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끼고 함께 운동하는 즐거움을 나눴다.

행사장에서는 건강 체험·홍보부스와 노래를 함께 즐기는 화합 한마당도 운영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장수=최진수 기자



### ㈜고리 윤광일 부사장 2년 연속 순창군에 500만원 기탁

㈜고리 윤광일 부사장이 6일 순창군에 고향 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2년 연속 지역을 향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윤광일 부사장은 지난해에도 순창군에 고향 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다시 기부에 동참하며 순창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줬다.

㈜고리는 전북 정읍에 소재한 배관자재 전문 제조기업으로, 상·하수도용 및 소방용 배관자재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PVC 파이프와 상하수도관 등 수도용 배관자재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며 관련 산업 분야에서 꾸준히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윤광일 부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창군에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가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 LH삼봉사회복지관 시니어 환경봉사단 활동

완주군 삼봉지구에 자리한 LH삼봉사회복지관이 지역 주민과 손잡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환경봉사단을 꾸려 환경 보호와 나눔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ESG 환경봉사단은 2025년부터 첫걸음을 뗀으며, 올해는 지역 어르신 20명이 뜻을 모아 3월부터 12월까지 환경 마을 만들기, 환경 캠페인, 환경 교육과 체험 등 다채로운 친환경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봉사단은 ‘제14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를 앞두고 축제장 주변을 미리 찾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줍깅) 활동을 펼쳤다. 어르신들은 축제장 일대를 맡고 정비를 위해 쾌적한 행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며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임평화 관장은 “앞으로도 환경보호와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유럽 4개국 명상여행단, ‘K명상’ 모악산 찾았다

### 한국 고유 명상문화 체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유럽 4개 국의 명상여행단이 개천절을 맞아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현대 선도문화의 발원지, 뇌교육의 발원지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모악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유럽 내 뇌교육 수련 전문가인 유럽 바디 앤 브레인(Europe Body & Brain)과 선도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럽 바디 앤 브레인은 유럽 각국에 뇌교육과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K명상은 유럽에는 2002년에 단학이라는 이름으로 서리(Surrey) 지역에 첫 센터를 개설하며 진출했다.

그후 러시아 등지에 보급됐고, 2018년에는 프랑스에 센터가 개설됐다.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에 센터가 개설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카나리아 제도(스페인령)의 테네리페에는 뇌교육 연수원인 테네리페 연수원이 운영되며 세계적인 휴양지인 테네리페를 찾은 전세계인들에게 뇌교육을 전달하고 있다.

모악산 방문 유럽 명상여행단은 10월 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5일과 6일 모악산을 방문해 △일지브레인아트 갤러리 투어 △선도명상 체험 △K명상의 의미 강연 및 명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한국 고유의 선도문화와 K명상을 체험한 후 6일 제주도로 이동했다. 일지브레인아트 갤러리에서는 선도문화의 역사와 철학, 정신을 살펴보고, 현대에 일지 이승헌 국학원 설립자에 의해 뇌교육이 세계화되어 K명상과 홍익정신이 세계화된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정철 기자

## 참좋은사람들사랑나눔공동체, 정읍시에 이불 기탁

### 1억 5000만원 상당 이불 전달

사단법인 참좋은사람들사랑나눔공동체(이사장 유영준)가 정읍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2일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불 세트를 기탁했다.

기탁한 물품은 일반용과 어린이용 이불 세트로,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과 환절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전달받은 이불을 23개 읍·면·동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과 정읍에서 일하는 외국

인 계절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이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유영준 이사장은 “가을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참좋은사람들사랑나눔공동체는 정읍 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받은 식품을 나누는 ‘푸드마켓’·‘푸드뱅크’를 비롯해 이동세탁차 ‘행복빨래방’, ‘한끼나눔밥상’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정진 기자



사단법인 참좋은사람들사랑나눔공동체(이사장 유영준)가 정읍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2일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불 세트를 기탁했다 <사진=정읍시>



### 나누리봉사대, 군산시에 연탄 1천장 지원

군산시 나누리봉사대가 지난 4일 조촌동 관내 어려운 이웃 4가구에 연탄 1,000장을 지원했다.

이날 봉사에는 나누리봉사대 회원 30명과 조촌동장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연탄 나눔은 난방비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회원들은 각 가정에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나누리봉사대는 현재 74명

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연탄 봉사뿐만 아니라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새만금 방파제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 급식 봉사 등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조촌동장은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개 대비할 수 있도록 귀한 연탄 나눔을 실천해 주신 나누리봉사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유)신흥, 익산아동들에 과자꾸러미 전달

익산시는 6일 (유)신흥(대표이사 유선자)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과자 선물꾸러미 300상자(1,5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물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종류의 과자로 구성됐으며, 익산시 드림스타트 아동가정을 비롯해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 아동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선자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누고자 이번 기탁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신흥은 2010년 설립된 식품제조·생산 현장 운영 지원 기업으로, 지역사회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김해 호남향우회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장수군은 지난 4일 김해 호남향우회(회장 김성복) 회원 64명이 장수군을 방문해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장수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장수군에 도착한 방문단은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을 관람하며 장수의 자연경관을 즐겼다. 이어 회원들의 마음을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장수군의 발전을 응원했다.

김성복 회장은 “아름다운 자연과 뜻깊은 역사를 품은 장수군을 회원들과 함께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은 회원들의 정성이 장수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주)승원, 창업 6주년 맞아 부안군에 장학금 기탁

주식회사 승원(대표 서영원)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자 (재)부안군농민재육성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창업 6주년을 맞아 기업의 성장에 보내준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꿈을 이어가며 자신의 미래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식회사 승원은 창업 6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을 맞아 지역의 미래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서영원 대표는 “창업 6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지역의 미래를 위한 나눔으로 이어가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배움의 길에서 힘을 얻고,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一事一言〉



사실은 없고 낙인만 있다

과보경

작가·前 국회정책연구위원

중추정장 인선을 두고 여권이 시끄럽다. 이상하다. 싸움을 거는 쪽이 야당이 아니다. 추미애 경기가지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개혁의 간판들이 개혁의 첫 단추를 제 손으로 뜯고 있다. 쥐를 잡을 고양이를 뽑는 자리인데, 이들은 쥐 잡는 솜씨를 묻지 않는다.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만 따진다.

그들 눈에 김지용 후보자는 친윤이다. 정부가 확인한 바는 이렇다. 김학희의 출국 금지 사건에서 기소된 4명 중 3명은 -가 지휘라인에 오기 전에 기소됐고, 남은 1명은 그 기 반대했다. 정진용 검사 사건에서도 그는 기소에 반대했고, 정 검사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은 재수사를 지휘했고,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는 각 승진한 검사장들이 가는 지방 고검 차장으로 밀려났다. 빛깔마저 잘못 본 셈이다. 정작 물어야 할 숨씨는 따로 있다. 그는 특수통이 아닌 형사부 출신이고, 추 지사가 바로 그 이유로 발탁했다.

주 지사는 후보자를 ‘밀정’이라 부르고 나치 전범 아이히만까지 꺼냈다. 비판이 아니라 인격 살인이다. 그를 검사장으로 키운 장관이 추미대다. 이제 와서 사람들은 실력이 형편없었다며 가슴을 친다. 근거는 윤 총장 없게 반대 성명에 서명했다는 것 하나다. 정부부는 그가 비위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친 윤이나 반윤이냐는 본질이 아니라고 했다. 친윤 낙인이 무너지자 과격ые 움직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 인선을 검찰개혁 무

력과 '7대 반동'의 하나로 꼽았다. 후보자가 요직을 겸할 출신으로 채을 거라고도 했다. 자리를 비워두자는 말까지 했다. 고양이 없는 곳간에서 웃는 건 지루다. 친일 형사에 빗대더니, 반민특위 위원장에 친일파를 앉히면 어찌냐고도 썼다. 김후보자에게 드러난 죄목은 없다. 있는 건 검사였다는 이력뿐이다. 역사의 가장 무거운 낙인을 인사 다툼에 끌어다 쓰면, 그 낙인이 가벼워진다.

박은정 의원은 후보자를 친원 검사, 반 검찰개혁 검사로 규정했다. 근거는 사건 지휘 이력과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 전력이다. 정부는 그 반대가 피해자 보호 공백을 격정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검사 이력이 죄라면, 박 의원 자신이 검사 출신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그렇다. 남에게만 들이대는 잣대를 워선이라고 부른다.

고양이를 고르는 순서는 법에 있다. 추천하고, 제청하고, 청문한다. 김 의원은 국회가 법으로 개혁의 길을 열었다고 했다. 그 길에 이 순서가 들어 있다. 그런데 제 손으로 건넌뒤고 있다. 추 지사는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얽혀 전전긍긍한다고까지 했다. 같은 당 박법제 전 의원조차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소유의 인사권을 비난한다며 본분을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이 압박에 밀려 물러서면, 다음 고양이부터는 목소리 큰 쪽이 고른다.

이 집안싸움을 가장 반기는 건 개혁의 반대편이다. 한동훈 의원은 여권이 자기 편인지로 싸운다고 비꼰다. 같은 시기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꺼내 민주당이 '조작수사 피해자 신화'로 국민을 속여

왔다고 했다. 법원 판단도 없이 끝난 혐의를 사실이라 우긴 것이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제 입으로 증명한 셈이다. 반대편이 고인을 육보이는 동안, 개혁의 간판들은 제 집 안방에 총구를 돌렸다.

임은정 광주지방법중수청장은 빗발 대신 지난 사냥 기록을 꺼냈다. 2018년 대검 검찰1과장이던 김 후보자가, 진풍곤 전 감사의 성폭력을 덮은 검찰 담당자들을 수사에 달라는 자신의 민원을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청문회 증인 출석도 사절했다. 그러나 무대가 페이스북이다. 현지 중수청 간부가 증거가 될 정보공개 결정문도 받기 전에, 임명권자가 청문을 요청한 인사를 공개 저격했다. 반대신문 없는 페이스북은 검증의 장이 아니다. 할 말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결정문을 펴 놓고 하명 된다.

고양이가 쥐를 얼마나 잘 잡을지는 청문회에서 따지면 된다. 세 사람이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끌어내리려는 건 증거로 이길 자신이 없다는 고백이다. 개혁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사실로 한다. 검은나 희나 따지는 사이 쥐는 달아난다. 지금 개혁을 흔드는 건 김지용이 아니다. 사실 일이 낙인부터 찍는 바로 그 목소리들이다.

— | 독자투고 | —

## “음식 다 준비했는데…”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노쇼 사기’의 실체



화는 수신 거부되어 돌아옵니다.

최근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텅 빈 테이블을 홀로 지켜봐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노쇼(No-Show·예약 후 미방문)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과거 노쇼가 단순한 에티켓 부재나 무

책임한 행동이었다면, 최근의 노쇼는 자영업자의 선량한 신뢰를 악용해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엄연한 '범죄'로 진화했습니다. 대량의 음식을 주문해 놓고 연락을 끊어 원재료비를 날리게 만들거나, 대량 예약 후 특정 거래처에 대금을 대신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변종 보이스피싱형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순 노쇼라 할지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허위 주문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해

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소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약 시 일정 금액의 예약금을 받거나 연락처를 철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상한 대량 주문이나 타 업체로의 대리 송금 요청은 즉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한숨’을 담보로 한 노쇼는 가벼운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과 신뢰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 박재원

▲오늘의시

화암사, 깨끗한 개 두 마리 / 안도현

화암사 안마당에는  
스님 모시고 노는 개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귀가 하도 맑고 깨끗해서  
뒷산 다람쥐 도토리 굴리는 소리까지  
훨씬 다 들읍니다  
간혹 귀 종종 세우고 썬 하니 달려갔다가는  
소득 없이 터털터털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귓전에 닿는 소리에  
덕지덕지 욕심 있어서가 아닙니다  
꼭 그날 한번 그려 본 것입니다  
바람이, 일엽이 풍경소리를 내는 물고기 꼬리를  
그저 그냥 한번 툭 치고 가듯이

시인 **악력** :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원광대 국어국문학과와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대구매 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1985년 이리중학교 국어교사를 하다 전교조에 참여해 해임됐다. 1996년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1998년 소월시 문학상, 2000년 원광문학상, 2002년 노작문학회상을 수상했다. 우석대 문학과 교수를 하면서 작가 활동도 병행했다. 2019년 우석대를 떠나 단국대 천안캠퍼스로 자리를 옮겼고 2020년에는 전주를 떠나 고령 예천으로 돌아갔다.

# 이원택 전북도지사 취임 100일

## “도민이 체감하는 성장, 이제 시작입니다”

‘도민주권정부, 이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지난 7월 1일 본격 출범한 민선 9기 이원택호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본보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그간 여정과 지금까지 성과, 향후 구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Q.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쉽 없이 달려온 100일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들려주신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됐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도정의 나침반으로 삼아왔습니다. 지난 100일은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단단한 토대를 다진 시간이었습니다. 굴직한 국가사업들이 잇따라 전북에 동지를 틀면서 “전북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와 무척 뜻깊었습니다.

이제는 이 토대 위에 도민께서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결실을 하나씩 쌓아 올릴 차례입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변화를 도민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시는 도의회와 시군, 관계 기관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Q.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체감성장’은 무엇인가.

“체감성장은 성장의 성과가 숫자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성장입니다. 전북의 자원과 인재, 기업의 힘으로 만든 성과가 도민의 소득이 되고, 다시 지역에 투자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100일, 그 토대를 다졌습니다.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전북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반영됐고, 도내 유망 기업을 새로 발굴해 단계별로 키우는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큰 기업이 들어오면 지역 기업이 함께 일감을 얻고, 청년은 고향에서 일하고, 동네 상권에 손님이 늘어나는 모습을 그려가겠습니다. 정책의 성과도 소득이 늘었는지, 청년이 지역에 머무는지, 도민께서 살기 좋아졌다고 느끼시는지로 따져보겠습니다. 성장의 열매가 도민께 고루 돌아가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 Q. ‘도민주권’도 강조해 왔는데.

“도민주권은 도정의 주인이 도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존중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전북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시작했습니다. 도민께서 직접 제안하신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무형유산 전승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민께서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도민 참여를 뒷받침할 조례를 정비하고, 제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도민이 함께하도록, 농정 분야부터 농어민이 현장 과제를 찾아내고 행정과 함께 정책으로 실행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완성하는 도정, 그것이 도민주권입니다.”

### Q. ‘열린 도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취임 때 약속드린 대로 도정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평일 낮에는 누구나 도청과 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청이 도민 누구나 편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1호 결재로 간부회의 생중계도 시작했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되는지 도민께서 집에서도 직접 지켜볼 수 있습니다. 현재 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활발히 토론하는 방식으로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열린 도지사실’에서는 도민과 마주 앉아 교통



## 도민주권·미래산업·새만금 투자 등 도정 방향 제시

### “기업·일자리·소득으로 결실 보여드릴 것”

안전, 문화유산, 지역 산업 등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실제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식을 더 다양하게 넓혀 더 많은 도민을 만나겠습니다.”

### Q. 현대차 새만금 투자 협약, 실제 공장 가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협약은 출발점이고, 중요한 건 그 약속이 실제 공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지원 전담조직을 꾸려 정부와 함께 정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와 물, 도로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데, 새만금 주변의 전력과 용수 공급 기반을 확인했고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국가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사업별 세부 계획을 차근차근 구체화하고 있어 투자가 분례도에 오르는 데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직원과 가족들이 살 집, 학교, 병원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들어서면 협력업체가 뒤따라오고, 도내 기업이 부품을 납품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곳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 Q. 피지컬AI·로봇 국가 프로젝트를 유치했다. 전북 산업은 어떻게 달라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서 피지컬 AI 연구개발 사업이 최종 선정되면서, 5년간 대규모로 투자되는 국가 프로젝트를 전북에서 추진됩니다. 연구개발센터와 실제 공장처럼 꾸민 시험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AI가 로봇을 움직이고 공장에서 일을 돕는 기술을 전북에서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마련해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와 기업 유치 방향, 현대차 투자와 도내 기업을 잇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로봇과 기술을 찾아 도내 제조현장 곳곳에 피지컬 AI가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와 현대차의 협약을 바탕으로 계약학과와 기업 맞춤형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전북에서 개발하고, 전북의 기업이 활

용하고, 전북의 청년이 그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Q.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됐다. 어떤 의미가 있다.

“전북에는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핵심 소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정은 이런 전북의 숨은 저력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 지역이 함께 도전했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전북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 정치권과 대학, 기업이 한 팀이 되어 뛰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

다. 앞으로 새만금과 익산, 완주를 잇는 반도체 소재 생산 거점을 키우겠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면 곧바로 성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인재도 지역에서 길러내겠습니다. 소재에서 시작해 관련 기업들이 모여드는 반도체 산업단지로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까지 그려가겠습니다.”

### Q. 정부 5급3특 전략에서 전북 ‘3대 성장엔진’이 확정됐는데.

“정부가 지역마다 앞으로 집중해서 키울 산업을 정하고 아낌없이 밀어주기로 했는데, 전북은 수소, 로봇, 농생명바이오 세 분야가 뽑혔습니다. 세 분야 모두 전북이 그동안 쌓은 강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새만금의 햇빛과 바람으로 깨끗한 수소를 만들어 공장과 자동차의 연료로 쓰고, 현대차와 함께 로봇을 만들고,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과 먹거리를 건강식품과 신약 원료 같은 새 상품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성장엔진으로 선정되면 정부가 예산은 물론 세금 혜택과 까다로운 규정 완화, 인재 양성까지 한꺼번에 지원합니다. 연말까지 전북만의 육성계획을 확정하고, 큰 기업뿐 아니라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농가도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엔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Q.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전북,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키워나가나.

“재생에너지는 농생명, 제조업과 함께 전북이 가진 대표적인 강점입니다. 특히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넓은 산업용지, 공업용수, 전력 기반을 두루 갖춘 곳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기업들은 깨끗한 전기로 만든 제품을 요구할 만큼, 재생에너지는 기업이 공장 자리를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공장에 필요한 전기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쓰는 ‘RE100 산업단지’로 만들어 기업과 일자리를 불러들이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혜택은 마을까지 이어집니다. 주민들이 함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도 도내 여러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을 활용한 바람소득마을까지 넓혀, 에너지 생산이 주민들의 연금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Q.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민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을 불러 모아 전북을 대한민국 대표 금융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국내 대형 금융그룹들이 전북에 거점을 두겠다고 밝혔고, 금융타운 건립도 지난날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첫발을 뒀습니다. 머지않아 혁신도시에 금융빌딩과 호텔, 국제회의장이 들어서고, 국내외 금융인들이 오가는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기관이 모이면 우리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도 고향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고, 주변 상권도 함께 살아납니다. 연내 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 Q.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이 최종 결정됐다.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의전원이 마침내 남원에 세워집니다. 지역 정치권과 남원시민, 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졸업생들은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며 의료취약지와 필수 의료현장을 지키게 됩니다. 국가가 교육부터 현장 배치까지 책임지고 필수·공공의료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진료를 특화해 학생 임상실습과 동부권 거점병원 역할을 함께 맡게 됩니다. 주민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전북을 대한민국 공공의료 교육·연구·임상의 허브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소재지 확정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정부, 남원시와 손잡고 차질 없는 개교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 Q.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북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이전계획 발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북은 발표 즉시 후속 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무조건 많은 기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북이 키우고 있는 금융, 농생명, 첨단산업, 문화체육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세심히 골랐습니다. 이미 전북에 자리 잡은 기관들과 손발을 맞추면 기관도 성장하고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실 직원과 가족들의 마음도 살피고 있습니다. 살 집과 아이 교육, 일자리까지 빠짐없이 필요한 부분을 챙겨 “전북에 오길 참 잘했다”는 말이 나오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해 오는 기관들이 전북에 빠르게 뿌리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Q. 마지막으로 각오는.

“지난 100일 동안 전북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전북은 이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가능성을 도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 오는 투자가 지역 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도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며 챙기겠습니다.

전북 곳곳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잇고,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와 지역 정치권, 시군, 도민 여러분과 힘을 모으면 못 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땀 흘려 일군 성과가 도민께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제가 가장 앞에서 뛰겠습니다. 도민이 주인인 전북, 도민의 살림을 채우는 성장, 이제 시작입니다.”

/대담= 장정철 편집국장